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1. (가), (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윤리학은 '선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어떤 행위가 선한 것인가'와 같이 도덕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도덕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에 주된 목표를 가진다.

- ① (가): 윤리학은 가치 평가와 무관한 인과적 기술이 중시된다.
- ② (가): 윤리학은 당위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선행해야만 한다.
- ③ (나): 윤리학은 이론 설정 시 다른 학문과의 교류가 필요할 수 있다.
- ④ (나): 윤리학은 규범에 대한 근거의 제시를 중시해야 한다.
- ⑤ (가), (나): 윤리학은 명제의 언어 명료화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기초로서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최대 행복의 원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을: 내가 거듭 생각할수록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 ① 갑: 타인에게 영향을 줘도 개인은 자유의 정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갑: 인간이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을: 개인의 경험이 개인의 행위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 ④ 을: 이성 없는 존재에 공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⑤ 갑, 을: 자신의 행복 증진을 최대의 도덕 원리로 삼으면 안된다.

3.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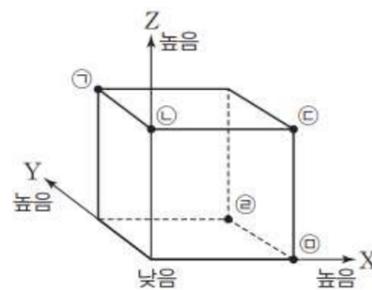
현존재의 비본래적 모습은 죽음 앞에서 불안에 대한 용기가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유한성과 일회성을 인식할 때 현존재는 불안과 더불어 나의 본래적 존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ㄱ. 죽음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도 자각하는 것이 가능한 사건이다.  
 ㄴ. 죽음 이후, 세계와의 단절은 생명체의 단순한 종말과 구별된다.  
 ㄷ. 공포가 아닌 불안이 인간을 본래적 존재로 만드는 원동력이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 (가) 사상의 입장에 비해 (나) 사상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성(性)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즉 사랑을 중시해야 한다.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성일지라도 사랑이 없는 성을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혼인과 출산, 사랑의 규제 아래에 있는 성이 더 좋은 성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성적 쾌락을 추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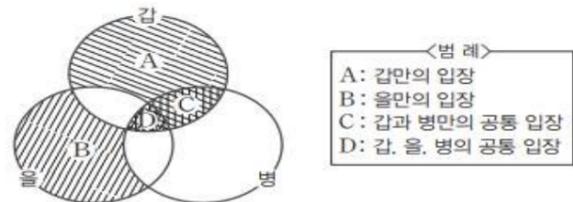


X: 성적 행위를 할 때의 쾌락적 가치를 우선하는 정도  
 Y: 성적 행위의 정당화 시, 사랑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Z: 해악 금지와 존중의 가치 외의 다른 조건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5.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대지 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과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을: 인간과 삶의 주체인 동물이 가진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인간을 오직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만 바라본다면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해 인간이 희생될 수 있다.  
 병: 동물과 식물이 그들의 종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선을 실현하는데 이성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없는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들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이 더욱 명확해진다.



ㄱ. (A): 생명 공동체 안 개체의 권리를 존중하면 공동체는 보전될 수 있다.  
 ㄴ. (B): 삶의 주체라는 사실만이 어떤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가짐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ㄷ. (C): 삶의 주체인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ㄹ. (D): 도덕적 고려 대상의 내재적 가치는 자체로 존귀하여 평가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술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가이다.  
 을: 현대 기술의 지배적인 탈은폐 방식은 일종의 닭달로,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강요한다. 기술에 의해 인간과 사물은 기술을 위한 재료가 될 위험에 내던져진다.

- ① 갑: 과학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한 자체의 발전 원리를 지닌다.
- ② 갑: 인간의 개입이 없는 한, 과학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
- ③ 을: 과학은 자연의 본질을 감춰버린 채로 세상에 드러나게 한다.
- ④ 을: 기술 연구의 정당화 과정에도 가치 판단은 필요한 것이다.
- ⑤ 갑, 을: 인간은 기술의 활용 결과에 대하여 성찰해야 한다.

17.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악(樂)이라 하는 것은 성인이 즐겼던 바이다. 더구나 그것을 가지고 민심을 선도할 수 있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바가 깊고, 그 풍속을 변화시키는 바도 용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이 예와 악으로 이끌면 백성이 화복하였던 것이다.  
 을: 어진 사람은 천하에 이익과 해로움을 따져 일을 처리한다. 음악을 즐기지 않는다면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위로는 성왕들의 일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만 백성들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갑: 예에 따라 음악을 규정하면 음악의 확일성이 부각되어 옳지 못하게 된다.
- ② 을: 음악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갑: 음악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언제나 바람직한 즐거움이다.
- ④ 을: 백성의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음악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 ⑤ 갑, 을: 백성을 화합하고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면 음악을 멀리하는게 이롭다.

18.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원조의 대상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을: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로 원조 주체와 대상의 이익이 모두 증진되지 못할 수 있다.
- ② 갑: 원조 대상은 빈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③ 을: 세상의 자원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풍족함을 가지지 못한다.
- ④ 을: 원조에 대한 차단점 없는 세계 시민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⑤ 을: 원조 대상의 공격성은 폭력을 수반한 원조를 정당화시킨다.

19.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인권 존중의 측면에서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을: 정보 이용자의 권리보다 정보 제공자의 권리가 중요하다.  
 다. 을: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보다 정보에 대한 공공선이 더 중시 돼야 한다.  
 라. 갑, 을: 개인 정보를 삭제할 권한은 공익의 측면보다 반드시 후행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20.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평화 조약에 의해 그때그때의 싸움은 멈춰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 상태가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평화 연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 ① 전쟁을 쉽게 하지 못하는 체제서, 전쟁의 종식을 이끌어야 한다.
- ② 국제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우호적 조건으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 ③ 영구 평화는 적극적 방안인 국가 간의 연맹으로서 이뤄져야 한다.
- ④ 이성의 명령에 따라 어떤 전쟁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⑤ 평화 연맹이 만들어지기 전 국제 정세는 전쟁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